

## 향교와 서원의 구성시설

Constituent facilities of Hyanggyo and Sewon



정 대 열 / 문화재수리기술자, 대경건축사사무소 감리부 부장  
 Jeong, Dae-yeol / Cultural Heritage Repair Engineer, Dae Gyeong Architects  
 daldongja@hanmail.net

### 1. 서론

유교건축은 그 어느 한국건축 보다도 ‘질서’가 조영의 기본 개념인데, 그 ‘질서의 미’는 축선과 균형에 있으며, 안정된 좌우 대칭균형기법은 장중한 유교적 분위기를 연출한다.

유교건축이 갖는 매력은 무엇보다도 절제된 단순미에 있다. 조선후기의 화려하다 못해 번잡한 감마저 드는 목조양식의 조류에 편승하지 않고 오로지 조선 500년을 꾸밈 없는 검소한 건축으로 일관해 왔다. 또한 공간구성은 매우 엄격하고 정연하여 조선시대 선비의 의연한 모습을 보는 것 같기도 하다.

각 지방에 학교가 생긴 것은 과거 제도가 시작되기 시작한 고려시대 부터라고 할 수 있다. 그 뒤 조선시대에 이르면 지방 학교를 대표하는 관학인 향교와 서원이 있었다. 이들 향교와 서원은 설립 주체나 배향 인물, 설립 시기 등에서 차이를 보이지만 형태나 기능 면에서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 쉽게 비교 설명 할 수 있다.

조선사회의 유교는 이전 시대와 크게 구별되어 조선 전 시대에 걸쳐 국교로 숭상되었다. 조선사회에서 유교는 봉건사회의 계급을 바탕으로 한 질서유지와 국가적인 통일성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던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가령 지방 향교의 문묘는 당시 유교적 신앙대상의 기본 유형을 이루고 있었고, 이는 조선후기의 서원과 더불어 선현에 대한 존중을 표현하는 유교조직의 기본단위를 이루었던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조선시대를 통해 유교조직의 기본단위였던 향교와 서원의 구성 및 시설에 대해 알아보고 이에 대한 이해력을 높여보고자 한다.

### 2. 향교와 서원의 역사

#### 2.1 향교의 역사

일반적으로 향교는 공자와 그 제자들의 제사를 지내면서 지방자제들을 교육시키던 관립학교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처음에는 ‘지방학교’라는 의미를 지녔으며, 이러한 의미에서 세워진 것으로 소학, 주학, 향학, 상숙 등이 있었다.

향교는 고려조에 설립되었으나 무신집권기와 몽고와 왜의 침입 등으로 인하여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다가, 고려말에 지방관과 유생들의 노력에 의해 점점 그 기능을 회복하고 숫자도 증가하였다, 그 뒤 조선이 건국되면서 향교는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즉 국가의 지도 이념으로 채택된 성리학을 모든 백성에게 보급시키기 위한 ‘1읍 1교’의 원칙에 따라 전국의 모든 군현에 향교를 건립하게 된 것이다. 세종실록지리지 는 당시 전국 329개 고을에 향교가 건립되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또한 향교들은 그 군현과 운명을 같이 하였다. 즉 군현이 없어지면 향교도 폐교되었고, 새로운 군현이 생기면 더불어 향교도 세워졌다. 가장 최근에 세워진 향교는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에 있는 오천향교로 1901년에 세워진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는 향교는 대부분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때 불타 없어졌던 것을 조선 후기에 증건한 것이다. 현재까지 한반도에 남아있는 향교는 남한에 231개가 있다.

조선시대에는 각 읍의 크기에 따라 향교의 규모도 다르게 나타난다. 향교는 제향영역의 규모에 따라 대설위, 중설위, 소설위로 구분하는데, 이에 따라 모시는 선현의 위패 숫자도 차이가 난다.

## ① 대설위

대성전에 공자와 4성<sup>1)</sup>, 10철<sup>2)</sup>, 송조6현<sup>3)</sup>의 위패를 모시고, 동·서무에 공문 72현, 한당송원 22현, 우리나라 18현<sup>4)</sup>을 봉안하는 것으로 전주, 강릉, 경주, 상주 등 관찰사가 머무는 큰 읍에만 설치하였다.

## ② 중설위

대성전에 공자와 4성 10철, 송조6현을, 동 서무에 우리나라 18현을 봉안하였으며, 부 목 도호부 등 비교적 큰 읍에 설치하였다.

## ③ 소설위

공자와 4성, 송조 4현을 대성전에 모시고 동·서무에는 우리나라 18현을 배향하는 형태를 취하며 군이나 현 등에 작은 읍에 설치하였다.

## 2.2 서원의 역사

서원은 교육시설과 종교시설이 결합된 건축이라 할 수 있다. 서원이라는 용어는 이미 신라시대에 등장하였으나 당시의 서원이란 일종의 관직이거나 도서관 같은 개인 사숙과 같은 학문 명칭이었을 뿐 조선시대에 등장한 교육기관으로서의 서원은 아니었다.

정통적인 의미를 갖는 서원의 시작은 중종 37년(1542) 당시 풍기 군수였던 주세붕이 현재의 영주시 순흥면에 세운 백운동서원(소수서원)이었다. 중국 송대에 세워진 백록동 서원의 예를 좇아서 백운동 서원을 세웠다.

서원이 건립되기 시작한 16세기 중반은 거대한 정치 사회적 변화가 진행되던 시점이었다. 재야에 머물던 사람들은 향촌사회의 지지와 학문적 정당성을 기반으로 점차 중앙 정계로 진출하기 시작하였다. 물론 기득권을 고수하려는 훈구파들과 격렬하게 대립하고 충돌하여 사화라는 정치적인 패배를 당해 세가 꺾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사람들은 서서히 중앙 정계를 장악하기 시작하였고, 성리학적 세계관은 정치 이념으로서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였다. 이때가 유교국가로서 조선 사회의 성격이 명확해지기 시작한 시점이었다. 이런 의미에서 서원 제도는 조선 사회의 가장 특징적인 제도였고, 서원 건축은 사람들의 성리학적인 정신세계를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건축물이기

1) 안자, 증자, 자사, 맹자

2) 민손, 염경, 염웅, 재여, 단목사, 염구, 증유, 언언, 복상, 전손사

3) 주돈이, 정호, 정이, 소옹, 장재, 주희

4) 설총, 최치원, 안향, 정몽주, 김평필, 정여창, 조광조, 이언적, 이황, 김인후, 이이, 성혼, 김장생, 조현, 김집, 송시열, 송준길, 박세채

도 하였다.

서원건축의 역사는 시창기, 급증기, 정비기, 복원기로 나눌 수 있으며 그 특징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① 시창기

학문에 힘쓰는 장수 우위의 시대로 16세기 중반부터 16세기 말까지이다. 이시기에 설립된 서원들은 교육기능에 치중하였다.

## ② 급증기

향사 우위의 시대로 17~8세기의 서원들에 해당한다. 점차 교육기능은 사라지고 가문 학벌 위주의 제향 기능이 강화되던 최대의 번성기였다.

## ③ 정비기

19세기 해당하며 이미 영·정조 때부터 서원 남설을 우려하여 강제적인 조정이 있어 왔고, 흥선대원군의 집권으로 전국 47개의 서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철폐하게 된다. 이시기의 서원은 강학과 제향이라는 본연의 기능보다는 유림 세력의 지역 기지로서 정치적인 기능이 강화되었다. 이 때문에 국가 권력의 집중적인 견제를 받아 쇠퇴하게 된 원인이 되었다

## ④ 복원기

대원군의 하야 이후인 19세기 말부터 철폐된 서원들의 복원이 성행하였던 시기이며 현재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

## 3. 향교의 구성시설

## 3.1 제향영역

조선시대 공자의 사상이 가장 충실하게 전달되었던 이곳은 유교의 정신적 지주로써 공간적 상징성 뿐만 아니라 건축적 조형미도 다른 구역의 건물보다 뛰어났고 배치구조에 있어서도 유교의 위계적 질서규범이 잘 지켜졌다. 향교의 건축구성은 대체로 서울 성균관의 유형과 유사하다. 강당은 명륜당이라 명명하여 학업의 중심으로 삼고, 대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문묘는 공자와 중국 및 우리나라의 선현에 대한 제사를 드리는 성전으로 두 부분을 기본구성으로 하는 학교로서의 향교건축이 이루어 졌다.

## ① 대성전(문묘)

문묘가 없으면 향교의 개념에 들지 않았으며, 향교는 지

방민을 교육하고 교화하는 학교 이전에 ‘문묘’라고 하는 제사영역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그 존재 의미가 있었다. 즉, 문묘는 유교의 성전이였다. 감사가 군현을 순방할 때, 수령이 새로운 근무지에 도착하였을 때 반드시 행하여야 할 의례가 문묘 참배였다. 지금까지 이러한 관습은 전국 대부분의 지방에서 지켜지고 있는데, 가령 지방의 군수나 시장이 새로 부임했을 때에는 먼저 향교의 문묘에 참배하고 있으며 아울러 석전제에도 반드시 초헌관으로 참석하고 있다.

대성전은 보통 전면을 열주형식으로 처리하고 벽과 출입문은 그 다음 칸에 설치하는 소위 개방형과 전면에 바로 벽으로 설치하는 폐쇄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전자의 경우가 제향시 필요로 하는 여유공간도 생기고 아울러 건축의 심연성도 갖출 수 있는 묘(사당)건축의 정수라고 할 수 있다. 대성전은 봉안하는 신위의 수(설위)에 따라 규모가 정해지며 정면을 5칸이나 3칸으로 한다.

② 동·서무

대부분 3칸 규모로 건립되었으나 대설위였던 전주, 경주, 상주 향교 등은 9칸에서 10칸 규모로 건립되었다. 이 건물은 대성전과 같이 전면을 개방형으로 한 곳도 있으나 폐쇄형으로 된 경우가 더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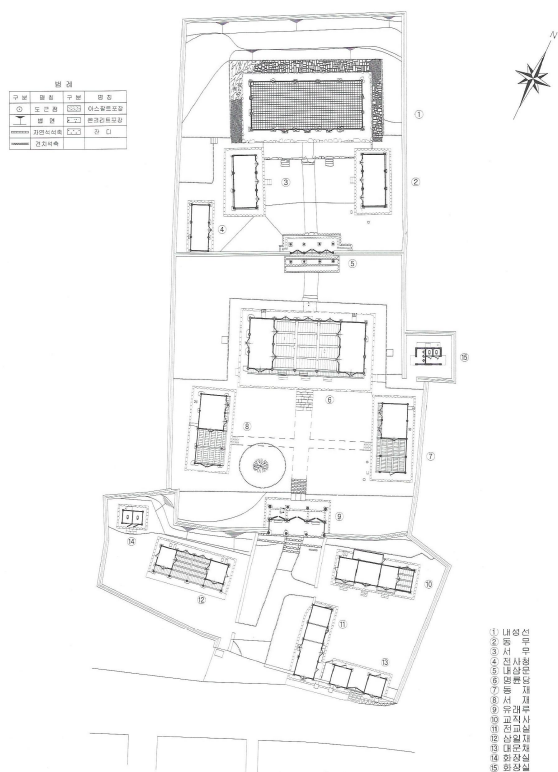


그림 1. 영천향교배치도 (경상북도의 향교건축)

3.2 강학영역

강학구역은 공자의 교학사상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된 일종의 학교로 ‘향교’라는 의미와 가장 가깝게 부합되는 곳이다. 이곳은 명륜당을 중심으로 동재와 서재로 일곽을 구성하는데, 중앙으로 명륜당을 배치하고 그 전면의 좌우 측으로는 보통 동·서재를 둔다.

① 명륜당

명륜당은 스승과 학생이 모여서 교육을 하는 곳이며, 일반적으로 중앙에 대청을 두고 양쪽에 온돌방을 두는 형태를 취한다. 명륜당이 교육장소인 동시에 교관의 거처로 쓰였기 때문이다.

② 동·서재

동·서재는 교생들의 숙식과 학문연마를 하던 곳으로 보통 명륜당 전면에 대청으로 2동이 건립되었다. 조선시대 교생은 공신의 자제로 부터 평민에 이르기까지 입학이 허락되었으나 신분에 따라 양반은 액내교생이 되었고, 평민과 서얼은 액외교생이 되어 서로 구별되어 있었다.

3.3 부속건물

① 외삼문

외삼문은 향교를 출입하는 정문을 가리키며, 대개 2층의 누각이나 솟을삼문 형태로 되어 있다.

향교에서의 누각은 유생들의 여가공간이며 여름철의 교육공간으로 사용되고 접객의 장소로도 이용되었다. 누각의 위치는 문묘구역과는 멀리 떨어진 강학공간의 전면 입구에 배치되며, 경사지형의 전학후면 배치형식인 경우가 일반적이다.

② 내삼문

내삼문은 제향공간과 교육공간 사이를 통하는 문으로 상대적으로 외삼문보다 작다. 내삼문은 중앙에 정문이 있고 그 좌우에 좁은 문이 있으며, 출입할 때는 동문으로 들어갔다가 서문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

③ 고직사(고사, 교직사)

향교를 관리하는 살림집이다. 원래 관노가 거처하면서 향교를 관리하고 제향시에는 제수를 준비하던 곳으로 현재는 별도로 관리인을 두는 경우가 많다. 주로 향교 경역 밖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다.

④ 경판고  
판각을 보관하는 곳이다.

⑤ 제기고  
제사에 필요한 기물을 보관하는 장소이다.

⑥ 전사청  
제사를 준비하는 준비실

### 3.4 기타

① 양사재  
향교와 좀 떨어진 곳에 유생들이 모여 공부하는 별도의 양사재가 마련되기도 하였다. 호남지역에 많이 건립되었다.

② 사마재  
향교 경내 한쪽 편에 건립되기도 하였는데, 사마재에는 주로 사마시 급제자, 생원, 진사가 거처했는데, 그들은 교생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사마재를 마련했다.

③ 관세대  
제향시 헌관 및 집사 등이 손을 씻기 위하여 물을 담아 놓을 수 있도록 만든 석물. 보통 동입서출하는 의식에 맞추어 올올라가는 대성전 계단 근처에 놓인다.

④ 망료대  
축문을 태우는 곳으로 정면에서 보아 대성전 좌측 뜰 한쪽 편에 위치한다.

⑤ 정료대  
관술가지나 기름등을 태워 장내를 밝히기 위한 것으로 보통 대성전 앞에 대칭으로 2기가 놓인다.

⑥ 하마비  
궁궐, 종묘, 문묘, 성현의 탄생지나 무덤 앞에 비석을 세워 지나가는 사람은 누구든 말에서 내려 경의를 표하게 하는 표지석을 말한다.

⑦ 홍살문  
붉은 칠을 하는 나무문으로 선현의 위패를 모신 곳이나 왕릉 등 신성한 지역을 알리는 표시물

## 4. 서원의 구성시설

### 4.1 제향영역

① 사당  
선현의 신위를 모신 건물로서 서원에 따라 영정도 함께 봉안하기도 한다. 사당에는 서원마다 고유이름을 붙인 현판이 걸려진다. 역시 사학인 관계로 향교와는 다르다. 많은 서원이 ‘~사(묘)’로 명명되어 있고 부르기도 사당보다는 ‘~사(묘)’로 호칭한다.<sup>5)</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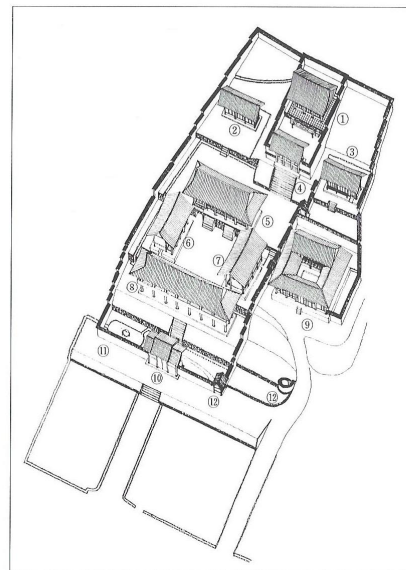


그림 2. 병산서원 구성도(한국의 서원)

### 4.2 강학영역

① 강당  
서원대 강학공간의 중심건물이다. 학생이 글을 배우는 곳이며 아울러 선생의 거처가 되기도 한다. 따라서 서원 내에서 제일 규모가 크고 보통 정면 5칸 정도로 계획한다.

② 동·서재  
원생들이 기숙하는 곳으로 보통 강당 전면에 대칭으로 자리하고 있어 강당과 함께 교육공간의 핵심을 이룬다. 강당의 좌향과는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강당을 향하여 오른쪽의 재를 동재라 하고 왼쪽의 건물을 서재로 부른다. 동재에 기거하는 원생이 서재의 원생보다 선임이 된다. 그러나 동재라고 하여 서재보다 규모가 크거나 특별한 장식이 부가되는 것은 아니다.

5) 도산서원의 사당은 상덕사, 병산서원의 사당은 존덕사, 옥산서원의 사당은 체인묘이다.

### 4.3 부속건물

#### ① 장판각

서적의 간행, 수집, 보관 및 관리 등을 위해 지어진 건물이다.

#### ② 전사청

제향시에 필요한 제수를 마련하고 기물을 보관하는 곳이다. 제향공간 가까이에 위치하며 제기고라고도 불리운다.

#### ③ 누각

원생들이 휴식과 여가를 위해, 또는 시회의 장소 등으로 지은 건물이다. 모든 서원에서 반드시 건축된 것은 아니지만 현존하는 대유학자를 모신 서원<sup>6)</sup>에서는 대부분 누각을 갖추고 있다.

#### ④ 내외삼문

문은 일차적으로 외부에 대해 내부의 영역을 예시하며 그 기능은 방어적 성격, 기념비적 성격, 통과례적인 성격 등으로 구분된다.

서원영역 입구의 맨 정면에 세워지는 일종의 상징적인 문으로 사찰의 일주문과 비슷한 성격을 지닌다.

#### ⑤ 고직사

서원의 관리 및 식사준비를 위해 지어진 건물이다. 노비들도 거처한다. 구조는 그 지역의 일반 살림집의 형태로 되어 있다. 가령 영남 북부지역에서는 ‘口자’ 내지 ‘ㄷ자’ 구조로, 호남지방에서는 ‘一자’형으로 많이 지어졌다.

## 5. 향교와 서원의 공간구조

### 5.1 향교의 공간구조

향교건물의 배치는 배향 공간과 교육공간이 놓이는 위치에 따라 두 가지 경우로 구별된다. 즉 제향 공간과 교육공간이 앞뒤로 위치하는 경우와 옆으로 위치하는 경우이다. 앞뒤로 놓이는 경우는 ‘전학후묘’와 ‘전묘후학’이 있고, 옆으로 위치하는 경우는 ‘좌묘우학’과 ‘좌학우묘’가 있다.

제향공간과 교육공간이 앞뒤로 위치하는 경우에는 향교가 위치한 곳이 평지인가 또는 산을 배경으로 한 경사지인가에 따라 배치 형태가 달라진다. 왜냐하면 제향공간인 대성전이 교육공간인 명륜당보다 우위의 개념이기 때문이다.

#### ① 전학후묘

향교를 경사지에 세운 경우에는 명륜당이 앞에 위치하고 대성전이 뒤에 놓이는 ‘전학후묘’의 형태로 배치하여 위치상으로는 대성전을 우위에 놓이게 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 남아 있는 대부분의 향교가 ‘전학후묘’의 형태를 하고 있다. 이러한 ‘전학후묘’의 형태도 명륜당과 동서재가 놓이는 방식에 따라 다시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한다.

우리나라에 남아 있는 대부분의 향교가 ‘전학후묘’의 형태를 하고 있다. 이러한 ‘전학후묘’의 형태도 명륜당과 동서재가 놓이는 방식에 따라 다시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한다. 하나는 명륜당이 향교 정문을 등진 가운데 대성전 쪽으로 동서재를 배치하여 내삼문을 통하면 바로 대성전으로 연결되는 형태를 ‘전당후재’라 한다.<sup>7)</sup> 다른 하나는 명륜당이 대성전을 뒤로하고 동서재를 정문 쪽으로 배치하는 ‘전재후당’이라 한다.

#### ② 전묘후학

향교가 평지에 세워지는 경우에는 대성전이 앞에 위치하고 명륜당이 뒤에 놓이는 ‘전묘후학’의 형태로 배치한다. 이것은 평지이더라도 사당을 가장 안쪽에 배치하여 신성시하는 서원의 건물배치와 차이를 보여 주는 점이다. 이러한 ‘전묘후학’의 건물 배치는 나주향교, 영광향교, 함평향교가 대표적이다. 이 경우 외삼문을 들어서면 정면에 대성전이 보이고 양쪽에 동무와 서무가 자리한다. 대성전 뒤로 내삼문을 지나면 정면에 명륜당이 있고 좌우에 동서재가 위치하게 된다.

#### ③ 좌묘우학 및 좌학우묘

‘전묘후학’이나 ‘전학후묘’의 일반적인 형태에서 벗어난 특이한 경우가 몇몇 향교에 나타난다. 즉 대성전과 명륜당이 앞뒤로 배치되어 있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향교 정면에서 보았을 때 양쪽으로 나란히 배치되어 있는 경우이다. 이때 대성전 왼쪽에, 명륜당이 오른쪽에 있는 ‘좌학우묘’인 형태는 밀양향교, 광양향교, 영암향교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여천의 돌산향교나 제주의 제주향교와 정의향교는 대성전이 오른쪽에 있고 명륜당이 왼쪽에 위치하는 ‘좌묘우학’의 형태를 하고 있다.

### 5.2 서원의 공간구조

서원의 배치유형을 ‘전학후묘’ 형식이라 부르기도 한다.

#### 7) 강릉향교

6) 도동, 옥산, 도산, 병산, 남계 서원 등

앞쪽에 강당을 중심으로 한 강학 공간을, 그 뒤에 사당을 중심으로 한 제향 공간을 배열하는 건축 형식을 일컫는다. 약간의 변형을 물론 있지만 거의 모든 서원은 이 유형적 규범을 충실히 따른다.

‘전학후묘’의 형식 안에도 서로 다른 두 가지 유형이 존재한다. 대개의 서원은 동서재가 강당 앞에 놓이는 ‘전재후당’형을 따르지만, ‘전당후재’라 하여 동서 양재가 강당의 뒤에 놓이는 경우도 있다.<sup>8)</sup> 전당후재의 경우, 강당의 정면은 앞이 아니라 동서재가 놓이는 쪽이 된다. 강당과 동서재로 이루어진 뒤쪽 마당의 나머지 한 면에는 사당이 놓인다. 이러한 유형에는 사당이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 6. 맺음말

유교 건축은 어느 한국전통건축보다 ‘질서’가 조영의 기본 개념이다. 유교적 제례절차와 같이 위계성이 포함된 질서체계가 있다. 그리고 질서는 횡적인 수평적인 질서가 아닌 종적인 상하체계의 질서로 일관되어 있다. 이는 불교건축의 질서체계와 차이를 보이는 점이다.

유교건축의 한 단위인 향교와 서원은 그 설립주체, 설립시기, 부흥기, 배향인물 등의 차이점도 있지만, 기능과 배치형식은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표 1. 향교와 서원의 비교

	향교	서원
설립주체	국가(관학)	개인(사학)
설립시기	고려	조선(16세기 이후)
부흥기	조선초기	조선중기
배향인물	공자, 4성, 10철, 공문72현 한당송원 22현, 송조6현, 우리나라18현	이황, 이이, 송시열 등 우리나라 명현
배향인물성격	일률적임	서원마다 다름
기능	교육, 제향	교육, 제향
교육기능건물	명륜당, 동재, 서재	강당, 동재, 서재
제향기능건물	대성전, 동무, 서무	사당
부속건물	외삼문, 내삼문, 고직사 경관고, 제기고, 전사청	외삼문, 내삼문, 장관각 전사청, 고직사, 제기고
배치형식	전학후묘, 전묘후학 좌묘우학, 좌학우묘 전재후당, 전당후재	전학후묘  전재후당, 전당후재

유교문화는 절제, 간결, 소박의 문화로 이해될 수 있는데, 유교건축의 대표인 향교와 서원에도 이러한 문화가 잘 녹아 있다. 조선시대 지배층의 건축이었지만, 사찰처럼 화

려하게 꾸미지 않고 절제된 단순미로 장식도 하지 않고 최소한의 필요한 요소만 갖춘 건축이었다.

유교건축인 향교와 서원은 장식화, 대형화, 비인간적인 스케일로 점증되고 있는 현대건축에 대한 반성과 앞으로 우리건축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지표로 삼을 만한 건축이라 할 수 있다.

8) 필암서원, 덕봉서원, 흥암서원